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제7공화국 위한 개헌 필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김대중 정신 입각 시대교체를” 이낙연,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 “민주 대선후보 바뀌어야”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탄핵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민주적 제7공화국’ 출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사태 해결과 정국 안정을 위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 헌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유다.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김대중추모사업회·국가과제연구원은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전병헌 대표 및 시민·지지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이영재 한양대 교수와 김성한 국립군산대 교수가 맡았다. 이들은 민주적 개헌 과정과 필요성 등을 집중 분석했다.

이영재 교수는 “1987년 시작된 제6공화국 헌법은 5·18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의 열망을 담아 개정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밑거름이 됐다”면서도 “박근혜·윤석열 정권의 탄핵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12·3비상계엄 등 민주헌정질서 유린 사태도 그간 쌓여온 정치 폐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가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토론회 패널이 ‘개헌이 민생이다’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이어 “악순환 정치를 끊어야 한다. ‘87년체제’는 40년 이후의 현재를 담지 못한다. 시대적 가치·지향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 계엄·내란 심판 이후 개헌연대를 추진, 입법·사법·행정의 민주·합리·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통령제 원포인트 개헌’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한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양극화·포퓰리즘·미디어왜곡’ 폐해가 심

각하다. 이는 12·3비상계엄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정치 세력은 보수·진보 양세력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하고 있고, 정책 논의보다는 음모·정쟁이 우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역사와 국민을 믿었던 ‘김대중 정신’이 절실하다. 관용과 질서, 용서와 화해만이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다”며 “제7공화국을 꿈꾸는 정치 지도자·세력은 국민들이 연 ‘시대 교

체’ 과제를 김대중 정신에 입각해 성실하고 묵묵히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조연설에서는 이낙연 상임고문이 나와 비상계엄 사태 해결과 정국 안정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과 극단 정치 청산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윤 정부 파탄, 거대 양당 폭주, 국민 분열 등 모든 정치 구조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윤 정권은 비판세력을 ‘반국가 세력’으

로 규정하며 이념논쟁을 너무 자주 촉발했다. 192석의 거대 야당도 무리한 법안을 잇달아 처리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을 위해서도 강행됐다”며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이 온전히 승복할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은 제6공화국을 종식하고 ‘희망의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버리고 전례 없는 ‘일극체제 늪’에 빠졌다. 폭력적 언동이 인기를 끄는 지금의 문화로는 극단정치를 청산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 분산하고 계엄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을 제안한다. 방식은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상임고문은 토론회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바꿔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원로 정치인들이 ‘민주당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 대선에 나서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현 기자

‘대선 출마 공식화’ 김영록 지사, 정치 행보 본격화

문 만나 “민주세력 지평 확장할 것” 서울서 방송출연 등 ‘호남주지문’ 부각



지난 8일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출판기념회 참석에 이어 9일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 다양한 세력과 스펙트럼이 필요하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합치고 지지 기반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저도 민주세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도록 힘차게 뛰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상경해 12일까지 수도권에 머물며 전남 현안 행시기와 더불어 정치권 인사 면담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대선 출마 배경을 밝히고 호남 정치 복원과 개헌 및 대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출마를 공식화한 김 지사는 “정치 세력 중 호남을 빼놓고 침체한 정치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치 체제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양극단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누적되면서 악화했다”며 “국가 재창조를 위해 정치를 대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연대 등은 절대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혼자 해 나갈 생각”이라며 독자노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민들은 네거티브한 정치에 매우 지친 상태로, 이번 선거는 정책을 통해 승부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선 이후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민주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완도 출신인 김 지사는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뒤 18대,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한편 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이나 3월 중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파면 포함) 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 ‘벚꽃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오지현 기자

에어렉스 AIRREX 2025 70% 정부지원 이동식 에어컨

최고 명품 1등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만의 특혜!!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신청기간 선착순 (현재 접수중)

	HSC-5400 R	HSC-6100 R
판매금액	1,600,000	1,800,000
정부보조금	1,041,000	1,199,000
자부담금(약)	559,000	601,000

※부가세 별도입니다.

담당자 : 총괄이사 상담문의 010-7532-5326

2025년 고소작업대 1000만원 정부무상지원

★고소작업대★를 아래와 같이 정부에서 1,000만원 무상지원 구입건입니다.

정부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 이동식 고소작업대를 아래의 (자사부담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 900~1,100만원 / 무상지원

지원내용 고소작업대 (지주코리아/수성)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신청기간 선착순 (현재 접수중)

	품목 (작업발판높이 기준)	판매가격	공단보조금	자체부담금
지주코리아	JC-30 (8m)	20,500,000원	11,182,000원	9,318,000원
	JC-31 (10m)	22,500,000원	11,182,000원	11,318,000원
	JC-40 (12m)	26,500,000원	9,086,000원	17,414,000원
수성	SSL-0812H (8m)	21,000,000원	11,182,000원	9,818,000원
	SSL-1812H (10m)	22,500,000원	11,182,000원	12,818,000원
	SSL-1212H (12m)	27,000,000원	12,086,000원	14,932,000원

※ 고소작업대 4m/6m도 있음 ※부가세 별도입니다.